

독자의견



River & Culture

강변예찬

박태진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산은 양

물은 음

늘 산과 물을 짝 짓는다

산은 뚜렷해도

물은 종잡을 수 없네

정해진 틀이 없고

그릇에 담긴대로 풀이 생긴다

아무리 귀신같은

숨씨 자랑하는 화가라도

물의 본색 표현이 어려워

산의 작가는 많지만

물의 작가가 드문 이유일터다

물을 물로 보지 않고

관조와 성찰의 도구로 보고

인류 최초의 거울이 물이 아니런가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아서

밤낮으로 쉬지를 앓는구려... 